흐름에 같이 못하는 순간이 장애
최선다해 같이 흐를땐 장애없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 오신날 특집으로 화계사에서 개최하는 3천배 정진법회에서 절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으니 동참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그 때까지 한번에 700배정도 까지는 해 보았으나 그 이상은 한 적이 없어 일단 자신이 없었다. 또 척추가 안 좋아 정밀진단을 받아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남들하고 구조가 틀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충고때문에 밤마다 척추에 파스를 붙이고 자던 때였다.

PD는 3천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절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으니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해 주면 고맙겠다고 촬영에 응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일단 500배까지만 도전 해 보고, 잘 되면 1080배를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앞에서 절하는 스님 속도에 맞추어 함께 따라 절을 했다. 50분을 절하고 10분을 쉬었다.

여러 카메라 중에서 고정되다시피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 대의 카메라가 멀리서 보였다. 500배를 지나 1천배를 넘어서며 포기하고 싶다가도 카메라가 다가오면 태연하게 절을 했다. 그러나 1천5백배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이러다 하나 남은 다리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앞에 있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눈만 바닥과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자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의 이상을 하나 하나 느끼기 시작했다. 무릎 감각이 없어지더니 뜨금뜨금 거리고 척추에는 열이 오르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PD가 말했다.

"힘들어 보이는데 그만 하세요." 나는 그때 "불교에는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한배 한배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하니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한 배만 더, 한 배만 더' 하다보니 쉬는 시간이 되었고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마칠 수 있었다. 지도하신 스님은 죽비를 내려 놓으시며 화계사에서 3천배 정진법회를 시작한 이래 끝까지 마친 장애인은 내가 처음이라며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으로 묘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 때였는데 3천배를 마치고 나니 그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그 후로 척추에 붙이던 파스는 아직까지 붙이지 않고 있다. 3천배를 끝마치고 화계사 밑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 눈물이 핑 돌았다.

요즘도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겨 힘들 때가 많지만 절에 찾아가 기도를 하고나면 고통이 사라져 행복을 느낀다.

오래전의 일이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때, 텔레비전에서 강변에 하얗게 죽어 떠 있는 고기를 보며 저 고기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방울의 맑은 물이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곳에서 큰 물은 못되어도 맑은 물 한 방울을 만들어 가는, 한 사람의 불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산불교청년회를 창립하고 우리 회원들에게 "각자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맑은 물 한 방울과 같은 사람이 되자"고 강조를 했다. 말만 가지고 맑은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속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와 수행을 해야 한다.

몇년 전부터는 월 1회씩 군부대를 찾아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처음은 창고를 개조한 법당에서 20명이 채 안 되던 군인이 법회를 보았으나 요즘은 100명이 넘어 법당을 신축 중이다.

내가 만일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와같이 가진 것 없고 몸도 불편한 장애인이 지금과 같이, 삶의 여유와 풍요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내 주위를 원망해 본 적이 거의 없다.

가끔 나는 내 자신에게 묻는다. '부모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의 지난 행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진리가 부처님 말씀인데 누굴 원망할 것인가.

3년 전 경제 한파로 직장을 잃었을 때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사찰 여름 수련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련회에 참석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종무소에 찾아가니 총무스님은 나를 보고 "신청서를 보니 다른 수련회에 참가도 해 보고 절도 많이 했다고 하길래 사중 회의에서 뽑았는데 이렇게 장애가 심한 줄 몰랐어요.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지만 후원에서 자원봉사자와 가벼운 일을 도와주면서 교육 시간 강의는 받고 참선 시간은 수련장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루 18시간씩 반복되는 고된 교육 일정을 감안할 때 척추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목발을 짚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건 당연했다.

"스님, 이곳 수련회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목발을 짚지 않고 걸을 수 있으니 하루만 지켜봐 주세요. 그것도 안 되는지요…"

40분간 애원을 했다. 수련생을 총괄하시는 스님은 나의 애원 때문에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수련생 전체와 우리 뜻도 생각해 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다.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데는 아무리 자신 있어도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서도 수련장에 그냥 눌러 앉아 있기로 마음먹었다. 번호도 뒷문 옆 끝번이니 다른 수련생에게 피해가 될 것 같지 않았고, 수련장에서는 내가 종무소에서 총무스님께 매달릴 때 옆에 계셨던 지도법사 스님 세 분만 계시고 총무스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수련장 스님께 지적 당하면 그때 물러갈 생각을 했다.

4박5일 동안의 수련 생활이 무척 힘든 것은 사실이었다. 수련기간동안 14명이나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다.

3일째 철야정진에 들어가기 전 차 한 잔을 나누며 둘러 앉아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총무스님은 "입방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수련생이 있어요"하시며 소감을 들어보자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매우 기뻤다. 스님의 그 말씀이 간접적으로나마 입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다. 100명의 수련생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며 나름대로 느낀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란, 어떤 길을 갈 때 흐름에 같이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순간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같이 흘러 갈 때는 장애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같이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에 얽매이면 장애인이고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여 매이지 않으면 그곳엔 장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련 중에 혹시 저로 인해 여러분들이 수련생활을 하는데 폐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고 마음속에 차별심을 가지고 장애를 그리면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어두운 부분보다 밝은 부분을 찾아 주세요…"

또 하나의 장애를 그려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당당히 말하며 그 자리를 나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어두움보다 밝은 빛, 한 방울의 맑은 물이 될 수 있나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지난 여름 한 달간 인도 배낭여행을 가서 '장애인의 몸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는데, 난 남은 생을 무엇하며 살까'를 생각했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알지 못하던 컴퓨터를 배워, 주위 도움을 받아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나의 신행 경험이 오늘도 삶의 고해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한방울의 맑은 물방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홈페이지 이름도 그래서 '장애바라밀'이다. 말 그대로 '장애를 넘는다'는 뜻이다. 사실 난 육체적인 장애보다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이 더 힘들다. 하지만 그 장애를 넘을 때까지 세세생생 나는 수행하며 이 길을 가련다.

"늘 한방울 맑은 물로 살기를…"

● 당선소감 ●

대상 임순기씨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우선 기쁩니다. 불법 공부에 최선을 다해 더욱 더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삶의 고비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고 공부하려 했던 나의 보잘것 없는 기억 조각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맑은 물방울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불교에 입문하게 도와준 동생,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님을 비롯해 도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나에게 주어진 큰 영광은 요즘 게으름에 빠져있는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또 꾸준히 매일 매일 정진하는 것이 참불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상을 주신 뜻에 누가 되지 않게 재발심하는 기회로 만들어 부처님 정법을 성실히 실천하는 불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년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난 임순기씨는 83년 금산고 졸업, 97년 동산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포교사 고시에 합격해 현재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구람 23일 현대불교신문사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열중하고 있다.

총 90편 응모 … 기복탈피 수준작 많아

● 심사평 ●

총 90편중 예선을 통과한 15편의 작품들이 본선에 올랐다. 올해는 기복적인 내용에서 탈피해 현실의 어려움을 신심으로 극복하면서 부처님 정법을 올바르게 깨닫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순기 씨의 '장애를 넘어'와 백남영 씨의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는 둘다 감동적인 내용에 더하여 뛰어난 문장 구성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장애를 넘어'가 장애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신심으로 승화시켜 참된 불자로 자리매김하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펴는 포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표현했다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로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또한 특별상으로 뽑힌 다섯 작품들 역시 삶의 고비를 이겨내기 위해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향훈을 가슴속에 새겨 신심으로 역경을 극복한 내용들로 신행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 비록 이번에 수상작으로는 뽑히지 못했지만 교도소 등 소외된 곳에서 업연의 과보를 참회하는 내용의 수기도 많이 응모되었다.

심사위원장 법산 스님은 "지난해보다 글의 내용과 구성면에서 응모자들의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현대불교 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비로소 불자들의 신행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행사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심사위원: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김징자(언론인) 최정희(본지 편집고문) 이창호(본지 제작총괄 편집위원)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용(靑龍) (우) 백호(白虎) (남) 주작(朱雀) (북) 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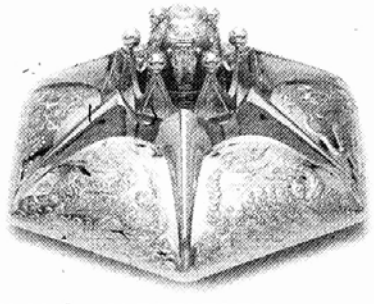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거리고 있었다.

※ 주지스님 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기(氣)란 : 현실이다



◆법칙을 어기지말라◆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육기방의 효험이 좋다는 분들이 많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소식없던 식구가 연락이 왔다.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사용처◆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구입처◆ 사찰, 암자, 철악관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